

## 追慕辭

김국주 (광복회장)

오늘, 우리 民族의 '참 言論人'이셨던 古下 宋鎮禹 先生 誕辰 118週年 追慕式에 招待되어 光復會를 代表하여 追慕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先生은 曹晩植·申翼熙·金俊淵·趙素昂 先生 등과 사귀면서 學校를 卒業하고, 歸國하여 이듬해 仁村 金性洙 先生이 中央中學校를 引受하자, 校長에 就任, 學生들에게 民族意識을 불어넣는 데 主力하셨습니다. 3·1萬歲運動 때는 民族代表 48人的 한 사람으로 被逮되어 1年 半의 獄苦를 치르고 出監하여 같은 해 東亞日報 社長에 就任하셨고, 以後 30餘年 間 社長·顧問·主筆 등을 歷任하면서 《東亞日報》를 名實共히 民族의 代辯紙로 이끄신 先覺者이셨습니다. 先生의 가슴속에서 뛰는 民族主義 思想은 民族自決과 3·1萬歲運動의 큰 潮流를 타고서 《東亞日報》의 紙面을 통해 꽃을 피우기 始作했습니다. 1931年 萬寶山 事件 때의 韓·中間의 報服中止를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1932年 '安昌南 故國訪問 大飛行' 主催와 物産獎勵運動 및 民立大學 設立運動의 提唱, '民族의 英雄' 마라토너 孫基禎 選手의 가슴에 달린 日章旗를 지우게 한 1936年의 日章旗抹消事件은 先生의 愛國魂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白凡先生의 어머니를 아들의 亡命地로 건너가게 뒷받침하고, 金相玉 義士의 아들을 당신의 新聞社에 入社시킨 일, 또한 先生의 民族意識이 임혀지는 證左임이 分明합니다. 先生은 또 8·15光復 後, 呂運亨 선생 등이 主動이 된 建國準備委員會와 맞서 民族主義 勢力을 규합하여 韓國民主黨을 결성하고, 首席總務가 되어 美軍政에 적극 협력하면서 뒤이어 還國한 李承晩 博士 및 臨時政府와 함께 政府樹立을 위해 努力하셨습니다. 先生은 또 教育熱에 있어서도 남달랐습니다. 檀君과 世宗大王과 李舜臣을 強調하면서 崇高한 民族精氣를 鼓吹시켰던 것입니다. '혹 節操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智略과 抱負를 갖춘 이는 드문데 이를 兼해 갖춘 선비'라는 評判을 얻은 先生은 韓國近代化 過程에 있어 누구보다도 폭넓은 役割을 擔當했던 人物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 推進勢力의 集結에도 寄與했다는 點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입니다. 言論人으로서 先生은 大記者이셨고, 抗日獨立運動의 指導者로서 歐美 留學이나 中國大陸으로 亡命하지 않고도 國內에서 合法과 非合法을 넘나들면서 때로는 監獄에 갇히기도 하

고, 脅迫과 懷柔를 받으면서도 民族運動을 展開해온 鬪士였지만 不幸히도 解放 4個月 만에 怪漢의 銃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古下 先生님이시어! 只今は 先生님같은 참 言論人이 그리워지는 時代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最高 政治指導者에서부터 國民들까지 모두가 黃金萬能과 物質至上主義에 빠져서 남을 配慮하는 너그러운 마음보다는 自己自身을 먼저 생각하는 動物的인 社會로 轉落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光復會에서는 지난 3年 前부터 國民意識 改革運動의 하나로 '第2光復 새 精神運動'을 實踐하고 있습니다. 正直과 信義, 犧牲과 奉仕, 남을 配慮하는 精神과 아울러 우리 固有의 倫理와 道德性을 回復하자는 이 運動의 窮極的인 目的은, 殉國先烈의 犧牲精神을 成長動力의 基礎로 삼아 豊饒로운 先進社會, 精神的 文化強國을 만들어 우리 民族의 最大 宿願인 統一祖國의 길을 열어가려는 것입니다. 부디 先生님의 偉大한 精神을 본받은 우리 光復會가 時代的 責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陰佑하여 주옵소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冥福을 빕니다. 永眠하옵소서.

2008. 5. 8

光復會長 金國柱